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두번째 스물' 등 4편 상영

몬시놀 샴 디른 '오마이파파' · 병인박해 150주년 기념작 '시간의 종말' · 홍상수 감독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옛 사랑과의 운영적 재회를 다룬 <두 번째 스물>, 가경자 소 알로이시오 몬시놀의 삶을 다룬 <오 마이 파파>, 병인박해 150주년 한글수교 130주년 기념 헌정작 <시간의 종말>, 홍상수 감독의 18번째 장편영화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를 상영한다.

<경의선>, <역전의 명수> 박흥식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 <두 번째 스물>은 20대에 뜨겁게 사랑했던 민구와 민하가 오해와 엇갈림 속에서 이별한 뒤 40대에 운영적으로 재회한 뒤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작품으로 김승우, 이태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영화는 90% 이상 이탈리아 로케이션으로 촬영한 작품으로 민구와 민하가 재회한 토리노 산카를로 광장부터 제노

바베르나차, 피렌체, 시에나 등 유명 도시들과 몬탈차노, 몬테풀치아노, 만토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이탈리아 곳곳을 답으며 아름다운 영상미를 더했다.

사랑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40대 남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영화 <오 마이 파파>는 1950년대 부산에 정착해 마리아수녀회를 창설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데 일생을 바친 소 알로이시오 몬시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그는 거리의 아이들을 강제 수용하던 영화속을 인수해 '소년의 집'을 열었으며, 팔라핀 멕시코 등지에서 '소년소녀의 집'을 열어 13만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로서 종교와 국가를 넘어선 완전한 사랑을 몸

소 실천한 가정자 소 알로이시오 신부의 가르침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담아냈다. <춘희마리>로 감동을 전했던 박희지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조미혜 작가가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영화 <시간의 종말>은 과거 목숨을 걸고 조선으로 넘어온 프랑스 신부들과 현재 프랑스로 파견을 떠나 사랑을 전하는 한국 신부들 사이에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은총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 위에 그려낸 작품이다.

세계적 첼리스트 앙성원의 총괄기획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리비에 메시앙의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를 메인 테마로 8개의 악장에 과거와 현재, 프랑스와 한국을 오고 가며 카톨릭 역사와 클래식의 만남을 담았다. 중요한 카톨릭 교리로 뽑히는 '선종'의 가르침을 전하며, 카톨릭의 역사와 클래식의

만남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이자 18번째 장편영화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은 영수를 떠나간 민정과 그런 민정을 찾아 헤메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감독과 처음 호흡을 맞춘 배우 김주혁과 이유영의 연기와 그동안 감독과 친밀한 작업을 이어온 배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64회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였으며, 제41회 토론토국제영화제, 제44회 뉴욕영화제, 제18회 리우데자네이루국제영화제, 제24회 함부르크국제영화제, 제35회 밴쿠버국제영화제 등에서 공식 초청된 작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 <http://theque.jff.or.kr> 문의 063)231-3377. /정해은 기자



전북작가회의 '작가의 눈 작품상'에 일곱번째 수상자로 하미숙 시인 선정

(사)전북작가회의(회장 김병용)가 시상하는 '작가의 눈 작품상' 일곱 번째 수상자로 하미숙 시인(47)이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시(일력), (이게 다예요)이다.

정철성·안도현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하미숙의 시를 읽으면 감칠맛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 같다"면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 적절한 모호함이 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미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하미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받은 것 같다"면서 "시를 안다고 혹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시가 멀어졌는데, 모르고 온 시가 연인이 되어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시를 열렬히 몰라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 시인은 임실 출신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10년 영남일보 신춘문예(시)를 통해 등단했으며 5·18문학상을 수상했다. 2012년부터 우석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전주시립대학에서도 문예창작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회의 작품상은 (사)전북작가회의가 매년 펴내는 작품집 '작가의 눈'을 창설하기 위해 2011년 제정했으며 매년 그 해 실린 작품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내년 2월 전북작가회의 총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8일자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부위원장 이상정)와 함께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민 수요에 맞게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소설, 그림, 영상 등의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 하지만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고 공시하는 '저작권 등록제도'를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제도를 활용하면,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의 경우, 등록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러한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또 기존에는 국문 등록증만 발급할 수 있었다. 저작물 해외 유통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침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창작자와 기업들이 권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빙을 통해 저작권 등록 또는 변동 등록 시에 건당 최대 7만 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저작권단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감면 제도는 폐지됐다. 기존에 저작권등록이 돼 있는 등록권리자는 국문등록증을 번역 공증받아 신청하면 영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문등록증 추가 발급의 근거가 마련돼 대한민국 저작물의 해외 유통과 침해 대응 관련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진주분원 또는 온라인등록시스템(www.orcs.or.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실제없는 모란의 형상으로 사고의 전환을"

전북예술회관 특별전시관 한국화가 유기준 개인전 '모금도부귀도' 전을 갖는다

"연말연시를 맞아 가까운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모란 그림을 선물했어. 그런데 누군가 제가 준 모란 그림 덕분에 사업이 번창했다며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소품으로 사용한다며 주문을 하더라고요. 이거요 그때부터 모란을 제 작품 활동의 소재로 삼은 것 같아요."

유기준 작가는 오는 17일까지 전북예술회관 특별전시관 문병에서 '모금도부귀도' 전을 갖는다.

작가는 누군가에게 쓰임을 다한 나무 '외죽갈고리·미장용 흙손·채갈·합지·망치·상이나 의자상판'에 모란 꽃송이들을 그려 넣어 화사한 생명력을 피워낸다.

모란은 부귀 외에 장수·공명, 평화를 뜻한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꽃 중의 제일이라고 하여 '꽃의 왕' 또는 '꽃의 신'으로, 또 부귀를 뜻하는 식물로서 부귀화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유기준의 모란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모란의 형상은 있되 실재가 없다.

이는 실제 없는 꽃(모란)에 실제 없는 바람(생각)이 불어, 그것이 마음에 집착되어 형상을 이루고 재조정되어 보는 사람에게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게 한다.

작가의 이러한 표현방법은 모란을 통해 부귀를 또는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 외에도 주변의 사소하고 값어치가 없는 것들을 보고도 부귀를 누릴 수 있다는 나름의 깨달음이 담겨져 있다.

유기준은 예원예술대학교 조형미술학(한국화 전공)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7차



유기준 작가는 오는 17일까지 전북예술회관 특별전시관 문병에서 '모금도부귀도' 전을 갖는다.

레의 풍경과 인물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는 예원예술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해냄, 조정래 '태백산맥' 30년만에 청소년판 출간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1986년 첫 출간 후 30년 만에 청소년판으로 개작돼 독자를 만난다.

8일 출판사 해냄에 따르면, '태백산맥' 청소년판은 원작의 이야기 구조에 따라 총 11권 각책하면서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장면·인물 묘사·대화·사건 전개 등을 다듬어 재탄생한 작품이다.

전태일문학상·라카치상을 받은 청소년 소설 작가 조호성이 2년에 걸쳐 개작하고,

'동강의 아이들'의 화가 김재홍이 그림을 그렸다. 각 권당 원고지 1650매 내외 분량을 600매 내외로 줄인 분량이다.

청소년판은 원작 구분과 마찬가지로 '한 의 모닥불' '민중의 불꽃' '분단과 전쟁' '전쟁과 분단' 등 모두 4부, 10권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인물 소개' '소설에 담긴 역사 용어 정리'를 부록으로 정리했다. /뉴시스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호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1월 9일>

<p>▷쥐띠 4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지연되지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60년생: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운. 72년생: :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언행을 주의하고 자중하라. 8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는 운이니 투자가 투기는 삼가라.</p>	<p>▷소띠 49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라. 61년생: 다른 사람과 불화가 생기는 운이니 주의하라. 73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이익이 생긴다. 85년생: 실력 있는 사람의 조언이 필요할 때. 외부에서 찾아보라.</p>	<p>▷호랑이띠 50년생: 자신 있는 일에도 무심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 62년생: 구설수가 발생하는 운이다. 결괴에는 원인이 있다. 7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다. 88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손윗사람의 도움을 구하라.</p>	<p>▷토끼띠 51년생: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오히려 느긋하게 행동하라. 63년생: 고생했던 일에 대한 결실을 얻게 되는 좋은 운이다. 75년생: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미리 준비가 필요할 때</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주의하라.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가신 일들이 발생하니 참견은 금물. 76년생: 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8년생: 의욕이 앞서지는 운이니 위 사람에게 실수 할 수 있다.</p>	<p>▷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생각보다 좋은 결과. 65년생: 소위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77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렵다.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바라보고 행동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라.</p>	<p>▷말띠 54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66년생: 연장자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 결손을 잃지 마라.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0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도 좋은 운.</p>	<p>▷양띠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악화된다. 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이니 금전운은 불리하다. 79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소화가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결하면 좋은 결과.</p>
<p>▷원숭이띠 55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문서를 주고받거나 서류를 정리하라. 69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나 큰일은 불가하다. 81년생: 남자는 어지로 인해서 일이 성사되지 동행하면 길하리라. 93년생: 시바수가 따르는 운이니 협동을 요하는 일은 미루라.</p>	<p>▷닭띠 57년생: 눈앞에 다가온 일부러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때. 69년생: 처음에는 곤란하고 힘드나 나중에는 좋은 결실. 8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려라. 93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실을 다지야 할 시기.</p>	<p>▷개띠 48년생: 건강에 적신호가 비추니 몸의 신호에 주의할 기를 여러. 58년생: 지나친 욕심을 화를 부르니 주의하라. 70년생: 원행은 심기는 것이 좋겠다. 특히 운전하는 사람은 더욱 조심. 82년생: 다치거나 아를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라.</p>	<p>▷돼지띠 47년생: 손윗사람의 건강에 신경써야 할 운이다. 59년생: 감동적인 주변의 상황으로 일에 대한 권태를 느낄 수 있다. 71년생: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면 주변 사람의 원망을 신다. 83년생: 홀로 고민하는 것보다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받아라.</p>